



숙종과 장희빈 이야기, 서오릉과 북한산성 - 초중생 자녀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 탐방

은평구립도서관
- 강사 김정열

○ 강 의 : 2013년 6월 16일 일요일 10:00 -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

○ 탐 방 길 : 2013년 6월 16일 일요일 12:30

- 서오릉 지역 : 명릉 → 수경원 → 익릉 → 대빈묘
- 북한산성 지역 : 상명대 → 탕춘대성 → 홍지문



북한산문화,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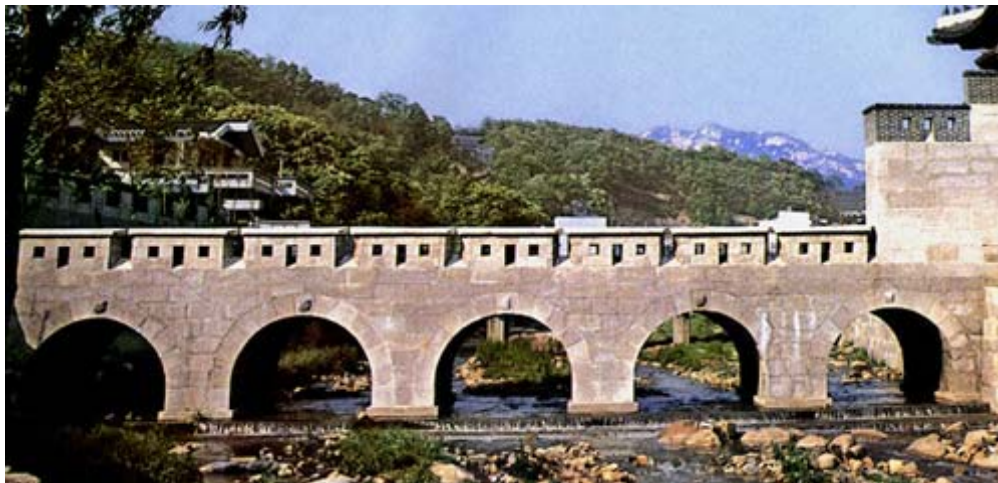
은평구립도서관

세계유산 조선왕릉 - 서오릉



서오릉 탐방길

명릉 → 수경원 → 익릉 → 대빈묘(약 4km)



북한산성(탕춘대성 구간)

상명대 → 탕춘대성 → 홍지문(왕복 약 3km)

<배움에 대한 열망>

○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김홍도, 송하취생도

- 인문학 3대 분야 - 문사철文史哲(문학, 사학, 철학)
-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종합, 융합능력은 학문 분야에서도 적용됨.
- 선비들의 고고한 취향, 시서화 詩書畫 삼절 三絶 (시,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난 것)에 대한 동경
- 흥선 대원군, 단원 김홍도(시서화 + 음악)
- 자연과학과 인문학 : 문과 학문과 이과 학문의 융합이 21세기 진리탐구의 기본자세
- 언어학과 자연과학의 중요성
언어학은 문학에, 과학은 철학에 포함
경제, 경영학은 사학과 철학에 포함
예술분야는 문에 포함
- *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공부, 유가 儒家의 대학 : 대인지학 大人之學
- * 유불선 儒佛仙 : 인류 문명사에 대한 이해

○ 율곡 이이의 문학관文學觀

- 道妙無形 文以形之 도묘무형 문이형지
- 도는 오묘하여 형체가 없으니 문으로써 도를 형상한다.
- 율곡의 문 文에 대한 퇴계의 지적

○ 단재 신채호, 위당 정인보의 역사관

- 國猶形 史猶魂 국유형 사유혼 :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혼을 잃어버린 것이므로 생존할 수 없다.

○ 역사관의 변천

- 독립문 현판 글씨의 주인공, 이완용과 서재필
- 독립문은 무엇에 대한 독립을 의미하는가?
- 고려, 조선의 중화 *사대주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 * 사대주의 : 힘 센 나라에 굽실거리며 필요 이상으로 아첨하는 것.



독립문 한자 현판



독립문 한글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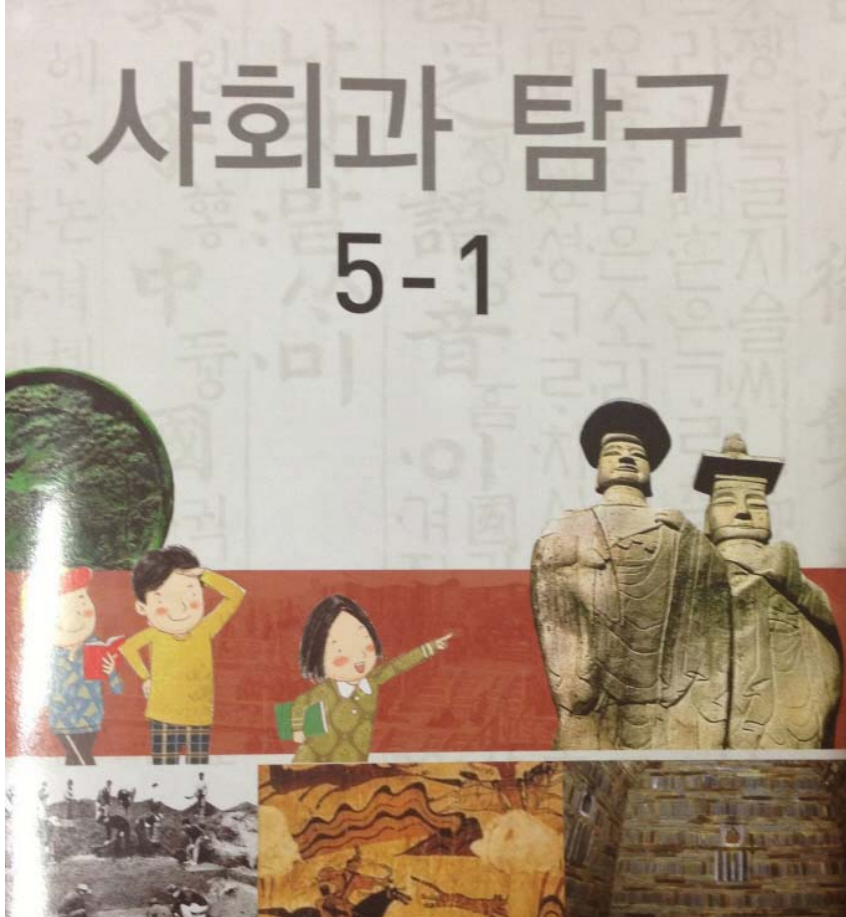
독립문에서 알 수 있는 역사관의 문제

독립문(獨立門) : 1897년 완공.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이 독립국임을 상징하기 위해 영은문을 무너뜨리고 그 터에 지은 문으로 서재필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현판의 한자 : 이완용, 한글 : 서재필.

친일 이완용, 친일친미 서재필.

1. 역사탐구의 배경지식, 한민족의 우주관 :
천원지방 사상, 오제 사상

1) 천원지방 天圓地方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과탐구 교과서 표지사진 파주 쌍미륵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다 : 3달 4계절 12시간의 순환

땅은 방정하다 : 토지 활용의 효율성

둥근 갓을 쓰고 둥근 얼굴을 한 남자 미륵.

네모난 갓을 쓰고 네모난 얼굴을 한 여자 미륵.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 하늘과 땅을 아버지 어머니로 인식했다.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보물 제 93호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4자 소학 부생모육 父生母育 의 의미.

천원지방은 천동설과 지구는 평평한 사각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한민족 우주관에서 천지의 가치에 차이가 없고 부모의 가치에 차이가 없다.

천존지비 天尊地卑는 조선 성리학의 왜곡된 해석.

2) 오제사상- 장승문화에 나타나는 오제사상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동방청제, 서방백제, 남방화제, 북방수제, 중앙황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은 중앙과 4방의 오제를 다스린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장승

방위	오제	오행	계절	생명	12월(음력)	사대문	오상
동	청제	목	봄	탄생	1,2,3월	흥인지문	인(仁)
남	적제	화	여름	성장	4,5,6월	송례문	예(禮)
서	백제	금	가을	성숙	7,8,9월	돈의문	의(義)
북	흑제	수	겨울	저장	10,11,12월	숙정문	지(智)
중앙	황제	토		조화		보신각	신(信)

* 흥지문(弘智門)

서울의 사대문



2. 인물 이야기

주요인물

왕 : 숙종 이순

왕비 : 희빈 장옥정

신하1 : 우암 송시열

신하2 : 미수 허목

신하3 : 갑봉 김우항

1) 숙종 이순

肅宗 李焞(1661년 8월 15일 - 1720년 6월 8일) : 조선 제 19대 왕.

사후 시호 :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유모영운홍인준덕배천합도계휴독경정중협극신의대훈장문헌
무경명원효대왕(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裕謨永運洪仁峻德配天合道啓休篤慶正中協
極神毅大勳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

○ 명칭에 나타나는 숙종의 성격

- 숙 肅 엄숙할 숙, 공경할 숙 : 숙청(肅淸), 숙살(肅殺)
- 조선역사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환국정치 : 남인과 서인

○ 숙종 때의 정치 구도와 주요 정치 일지

- * 남인 - 청남, 탁남 - 희빈 장씨의 정파
- * 서인 - 소론, 노론 - 인현왕후 민씨의 정파

숙종 즉위년(1674)	2차 예송에서 승리한 남인들, 서인 처벌문제 둘러싸고 청남(강경파)와 탁남(온건파)으로 분열, 탁남 정권장악.
숙종 6년 (1680)	영상 허적의 기름 천막 사건으로 남인정권 붕괴. 서인집권 : 허적, 윤희 등 사형당함.
숙종 7년 (1681)	서인의 정신적 지주인 이이, 성혼을 문묘에 종사함.
숙종 9년 (1683)	윤증, 정치참여 위한 3대 명분론 제기.

	서인,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
숙종 15년 (1689)	경종의 세자책봉 건. 인현왕후 민씨 폐출. 장희빈이 왕비에 오르고 남인이 집권함. 남인이 서인을 살육함. 송시열, 김수항 사약받음. 이이, 성혼은 문묘에서 쫓겨남(기사환국).
숙종 20년 (1694)	남인 실각, 서인이 집권함. 장희빈 쫓겨나고 민비 복위. 서인이 남인을 살육함(갑술환국).
숙종 27년 (1701)	민비 병들어 사망, 장희빈 사약받음(신사옥사).
숙종 43년 (1717)	숙종, 노론 거두 이이명과 정유 독대, 세자 대리청정
숙종 46년 (1720)	숙종 사망.

○ 숙종의 가족관계

아버지 : 현종

어머니 : 명성왕후

왕비 :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장옥정(희빈 장씨)

후궁 : 숙빈 최씨등

아들 : 이윤 李昀(경종) - 희빈 장씨(장옥정)

아들 : 이금 李愔(영조) - 숙빈 최씨(드라마 '동이')

○ 숙종의 *일화(*일화 : 숨겨진 이야기, 뒷이야기)

숙종과 인원왕후의 능이 이곳으로 정해진 연유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숙종이 하루는 평상복을 입고 민심을 살피기 위해 껌을 벗어나 어느 냇가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때 냇가에서 한 젊은이가 울고 있는 것이 보여 연유를 물으니, 갈처사라는 유명한 *지관이 이곳에 무덤을 쓰면 좋다고 해서 땅을 파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고이니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숙종은 그 지관이 장난을 쳤다고 여기고, 젊은이를 불쌍히 여겨 관청에 가서 쌀 300석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적은 편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지관이 살고 있는 허름한 오두막집을 찾아가 청년의 일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지관은 “모르면 잠자코 계시오. 저 땅은 무덤자리로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석을 받고 명당자리로 들어가는 자리라오!”라며 따져 묻는 숙종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그의 신통함에 놀라 자신이 국왕인 것을 밝히고, 훗날 숙종이 문힐 묘자리를 골라달라고 부탁하였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지금의 명릉 자리가 바로 신통한 지관 갈처사가 택한 입지라고 한다. (*지관 :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 어느 곳이 살기에 좋은지, 무덤으로 좋은지 살펴보는 것)



서오릉 : 명릉, 숙종과 인현왕후릉



인원왕후릉

*동원이강릉 : 하나의 정자각 뒤, 각기 다른 언덕에 봉분을 배치한릉.

○ 숙종의 글씨 : 숙종어필(肅宗御筆) - 포항 보경사 원판 탁본



* 어필 : 임금님이 쓰신 글씨

春眠不覺曉 춘면불각효 봄날 아침 몽롱한 새벽

處處聞啼鳥 처처문제조 지저귀는 새 소리에 잠을 깬다.

夜來風雨聲 야래풍우성 밤새 비바람 거세더니

花落知多少 화락지다소 꽃은 또 얼마나 떨어졌을까.

맹호연(孟浩然, 689-740, 당나라의 시인)의 시, 춘효(春曉-봄날의 새벽)

2) 희빈 장옥정

○ 희빈 장씨(禧嬪 張氏, 1659. 9. 19 - 1701. 10. 10), 장옥정(張玉貞)

- 조선 제 19대 왕 숙종의 빈이며, 제 20대 왕 경종의 어머니.

- 서울 은평구 출생.

- 아버지는 역관 출신인 장형(張炯)이며, 당시 거부(巨富)였다.

- 어머니는 장형의 후실인 윤씨다.

-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었기에 장옥정 또한 사대부 계층이 아니었으나 워낙 부유했고 남인세력과 자의대비 조씨(인조의 계비)의 총애를 배경으로 하여 입궁했다.

- 숙종이 사약을 내리자 그것을 거부하고 약사발을 집어던지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허구.

-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자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튿날 사약을 내렸다.



서오릉, 대빈묘

처음에 경기도 양주 인장리에 있었지만 묘에 물기가 있다는 상소가 있자 숙종45년(1719) 경기도 광주 진해촌(眞海村)으로 천장했다. 1969년 묘소를 통과하는 도로가 생겨 서오릉의 숙종 곁으로 이전했다.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무덤을 '원'으로 격상했으나 경종의 어머니 장씨의 무덤은 '원'으로 격상하지 않고 '묘'로 방치했다.

○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에 의해 300년 동안 왜곡된 장옥정의 삶

장옥정의 파멸, 결국 모든 게 속종 탓이다

-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오마이뉴스 2013. 4. 8.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장옥정(장희빈, 희빈 장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고 높기만 하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옥정은 악하고 표독해서 파멸을 자초했다'고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놓은 장본인 중 하나는 소설 <사씨남정기>를 남긴 김만중(1637~1692년)이다. 장옥정의 전성기에 <사씨남정기>를 창작한 김만중은 이 소설을 통해 '장옥정은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안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아 죽을 여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만중이 남인당 집권기간(1689~1694년) 중에 유배됐다가 사망한 서인당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이 소설을 쓴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남인당의 지지를 받는 장옥정의 위상을 깎아내림으로써 남인당의 권력기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 소설을 썼던 것이다.

김만중의 작품은 기득권 세력인 서인당의 권력에 힘입어 마치 실화 소설 같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것은 장옥정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그의 패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제껏 나온 소설 중에, 일국의 왕후를 이처럼 철저히 저주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3백년이 넘도록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작품은 <사씨남정기> 밖에 없을 것이다.

속종시대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속종뿐 아니라 장옥정의 이미지도 많이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옥정은 정치적으로 버림받은 희생양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장옥정이 악독해서 파멸한 게 아니라, 속종한테 이용당하다가 파멸했던 것이다. 악독했기 때문에 패한 게 아니라, 패했기 때문에 악독한 사람으로 폄하됐던 것이다.

속종 이전의 정치는, 사대부 당파들이 정치를 주도하고 왕은 그것을 따라가는 구도로 전개됐다. 그런데 속종 때부터는 왕이 당파투쟁을 조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만큼 왕권이 강해진 것이다.

왕권이 강화되는 양상은 조선·청나라·일본 3국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17·18세기 동아시아 평화에 힘입어 조선의 주상, 청나라의 황제, 일본의 쇼군(무사정권 수반)이 똑같이 강해졌던 것이다. 참고로, 일본 역사에서는 일왕(소위 천황)뿐만 아니라 쇼군과 관련해서도 왕권이란 표현이 사용되는 예가 많다.

그런데 숙종은 조정의 당파투쟁을 궁중의 여인천하와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왕권을 더욱 더 강화했다. 숙종은 집권당을 바꿀 때마다 집권당 출신 여인을 왕비로 책봉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한 당파가 집권당과 중전 자리를 동시에 보유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서인당이 정권을 잡으면 서인당 여인이 왕비가 되고, 남인당이 정권을 잡으면 남인당 여인이 왕비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각 당파의 목표는 중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됐고, 이것은 왕비 책봉권을 가진 숙종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장옥정, 인현왕후, 최숙빈(숙빈 최씨, 영조의 생모) 같은 여인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서인당 쪽인 인현왕후나 최숙빈처럼 남인당 쪽인 장옥정도 이런 구도의 피해자였다.

이런 과정에서 장옥정도 희생양이었다. 숙종은 장옥정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다른 여인들을 이용하듯 장옥정도 이용하다가 결국 내버렸다. 숙종에게는 사랑보다는 권력이 더 소중한 것이다. 숙종의 버림을 받은 장옥정은 중전 폐위와 사형이라는 연이은 불행을 당했다.

숙종시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옥정은 인현왕후·최숙빈과 더불어 이 시대 정치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었다. 장옥정은 숙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이용하다가 내버린 여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사씨남정기>라는 문학작품마저 장옥정을 교활하고 악독한 여인으로 만들어놓았다. 숙종은 장옥정을 악용하고 김만중은 장옥정에게 먹칠을 한 셈이다.

3) 우암 송시열



○ 송시열(宋時烈, 1607년 11월 12일 ~ 1689년 6월 3일)

- 조선 후기의 문신, 성리학자. 본관 은진, 호 우암(尤庵), 시호 문정(文正).
- 조선 유일무이한 송자(宋子 : 孔子, 孟子, 朱子에 버금가는 호칭).
- 효종, 현종 두 임금의 스승이었으며, 서인의 영수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 예송논쟁으로 허목과 대립하였고 숙종때 장희빈의 아들 이균을 세자로 책봉하는 일에 반대하여 사약을 받고 사망함.
- 죽은 뒤 정조에 의해 성인(聖人)으로 추송되어 송자, 송부자 호칭을 얻었다.
- 저서 : 송자대전(宋子大全 : 유고)
-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 **서오릉의 경릉 참봉으로 관직생활 시작(경릉:세조의 아들 의경세자, 덕종 추존)**
- 만동묘 건립(임진왜란때 군사를 파견하여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지내는 사당, 1704건립,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시에 문을 닫았으나 1874년 부활함.) : 중화 사대주의의 상징물. 명은 이미 멸망한 나라(1368-1644).



만동묘

○ 성인이 내려준 아이

- 송시열은 1607년 선조 40년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 외가에서 수옹 송갑조(1574-1628)와 모부인 곽씨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은진, 아명은 성뢰, 자는 영보, 호는 우암, 화양동주이다.

- 두 살 때 이미 총명하고 신중하여 마치 어른과 같았다고 한다. 세 살 때 스스로 글자를 깨쳤으며 어려서부터 늘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외무가 준수하고 비범하여 무당이 어린 송시열을 보고는 “이 아이 때문에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하고 있다. 네 살 때에 어떤 상인이 문 앞을 지나다가 돈을 흘렸는데, 어린 송시열은 이를 주워서 상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한다.

○ 송시열 관련 유적지

- 만동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 우암사적공원 : 대전시 동구 가양동

○ 송시열과 허목의 처방전 이야기

○ 종묘와 문묘

- 종묘 : 조선왕조 역대 제왕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
- 문묘 : 공자와 그의 제자 및 한국과 중국의 위대한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곳.

○ 문묘에 모셔진 사람들

- 중국인 21명 : 공자, 안자, 자사, 증자, 맹자, 민손, 염옹, 단목사, 중유, 복상, 주돈이, 정이, 장재, 염경, 재여, 염구, 언언, 전손사, 정호, 소옹, 주희.

- 한국인 18명 : 설총, 안향, 김굉필, 조광조, 이황, 이이, 김장생, 김집, 송준길, 최치원, 정몽주, 정여창, 이언적, 김인후, 성혼, 조헌, 송시열, 박세채.

○ 주자를 극히 존중한 송시열

-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자로부터

- 허목의 관점과 대비됨.



우암사적공원



우암사적공원 내 남간정사

4) 미수 허목



○ 허목(許穆, 1595년 12월 11일 ~ 1682년 4월 27일)

- 조선후기 문신 및 유학자, 역사가, 서예가, 사상가, 정치가. 본관 양천, 자는 문보, 호는 미수(眉叟)

- 미수의 뜻 : 눈썹노인, 흰 눈썹이 길게 휘날리는 도사의 모습.

- 남인의 우두머리였으며, 송시열과 인현왕후의 반대편이었다.

- 서예의 대가, 특히 전서체에서 뚜렷한 개성을 보임.

- 저서 : 미수기언

- 성리학과 실학의 연결자로서의 역할

- 주자 성리학의 틀을 벗어나 원시 유교경전을 직접 탐구함.

허미수자명(許眉叟自銘)

*자명 : 죽기전 자신의 무덤비석에 새길 글을 미리 스스로 짓는 것

말은 행동을 덮지 못하고

행동은 말을 실천하지 못하였다.

한갓 요란하게 성현의 글을 읽기만 좋아했을 뿐

허물을 보완하지 못하였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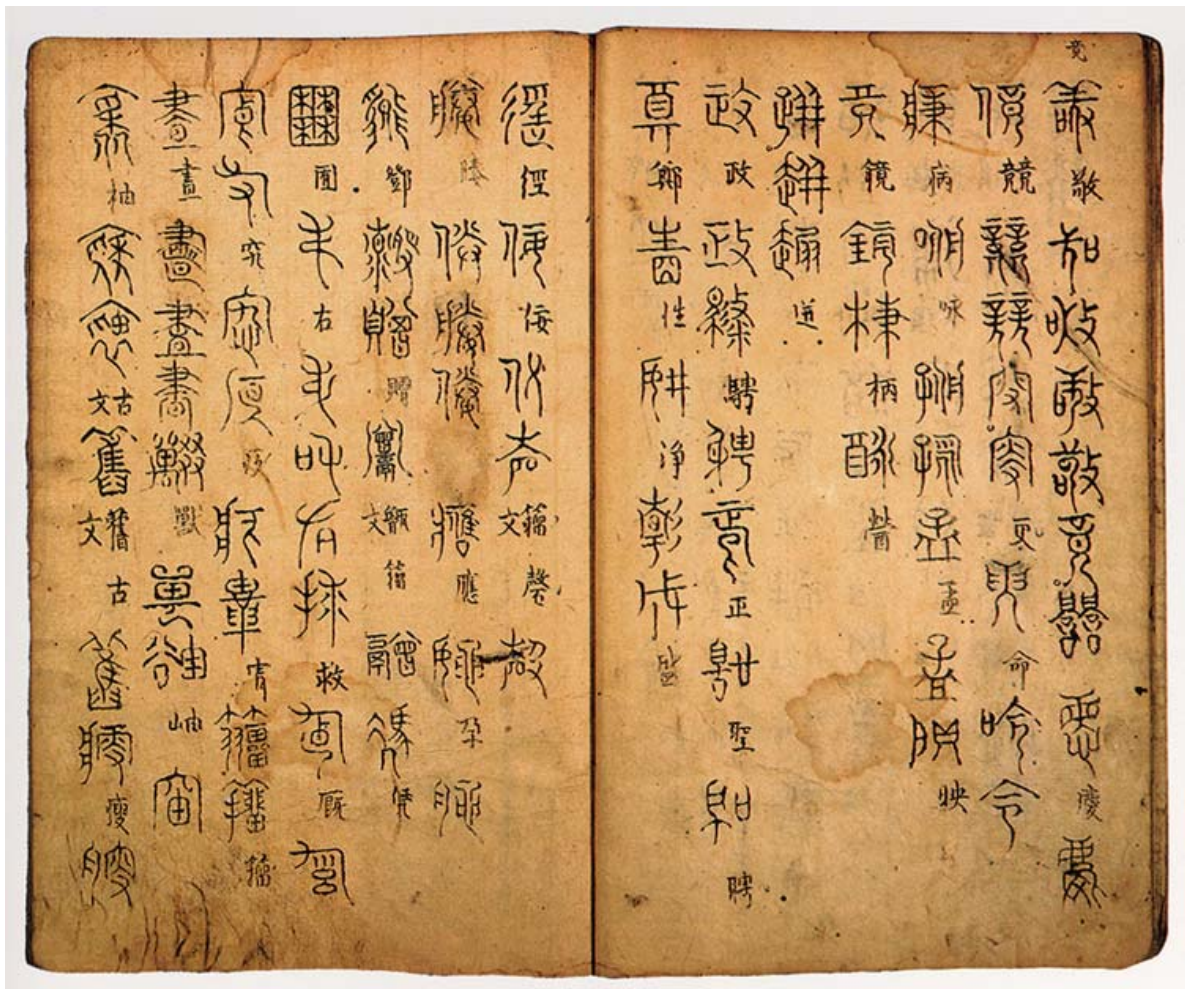
돌에 새겨 뒷사람에게 경계하노라.

說讀古人書 열독고인서
 行年八十餘 행년팔십여
 所謂百無餘 소위백무여
 拙戇無如余 졸당무여여

팔십평생 옛사람의 글을
 즐겨 읽어도
 행한 바는 옛사람과 같지 못하였으니
 나는 멍청이로다!

有感必有應 유감필유응
 此理本不虛 차리본불허
 殷人嚴鬼神 은인엄귀신
 鬼神豈欺余 귀신기기에

인간이 느끼고 신명은 응하니
 人神의 감응은 정해진 이치이거늘,
 내가 엄중히 경고하노니
 귀신은 나를 속이지 말라!



미수허목의 글씨 : 전서체

牧牛圖記 丁未正月
 去年春余未居健上客於吳
 殿中某村牧牛圖示余兩景
 一曰景之二曰有平蕪野對地
 一曰遊牛有行者立者吃草者
 童子有跨者有下者有被某
 者有真教之者有村首年
 者其身下竹之名以將子也
 村成一付余無以事之於耕
 牧或炊菑種林或放牛平
 蕪重竹清溪夕曠烟有暝
 罷釣能牛高性此冬人耕牧以
 牛之有女今村已暮者言游沫
 空知鹿响宜海負冰寒障來
 後日又對此有一監於五郊原間
 之想古言古詩為牧牛圖記

미수 허목의 글씨(목우도기)

5) 갑봉 김우항



○ 김우항(金宇杭) 1649(인조 27)~1723(경종 3)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김해. 자는 제중(濟仲), 호는 갑봉(甲峰)·좌은(坐隱).
- 1669년(현종 10) 사마시에 합격, 1675년(숙종 1) 유생들과 더불어 자의대비(慈懿大妃) 복상문제로 송시열(宋時烈)이 유배되자 이의 부당함을 상소하였다.
-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사직하였는데, 일찍이 송시열과 함께 유배된 이상(李翔)을 변호했던 일로 철산(鐵山)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 1694년 갑술옥사로 소론이 집권하자, 다시 기용되었다.
- 이듬해 경상도관찰사가 되고, 1696년 회양부사, 1697년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며 진정(賑政)을 잘하여 칭송을 받았다.
- 1707년 한성부판윤, 형조·병조·이조판서를 거쳐, **1710년 호조판서가 되어 북한구관당상(北漢句管堂上)을 겸하며 산성의 축성과 행궁축조의 책임을 맡았다.**
- 1712년 과옥(科獄)이 일어나자 소론으로서 자기의 당여를 두둔하지 않고 엄정하게 사실을 규명하여 소론으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 1722년 신임사화로 노론 4대신이 화를 입자 이의 부당함을 극력 주장하였으며, 또 김일경(金一鏡)의 사친추존론(私親追尊論)을 반대하다가 화를 입었다.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으며 사람들로 부터 장자(長子) 또는 완인(完人)이라 불렸다.
- 저서 : 갑봉집(유고), 시호 충정(忠靖).

○ 춘향전의 모티브, 김우항과 단천기생 항아

- 가난하지만 능력있는 선비가 출세하여 옛 연인을 찾는다는 이야기.
- 고구려 을밀선인의 을밀대 이야기와 함께 춘향전 모티브의 하나.

상국 相國 김우항은 서른여덟에 여전히 벼슬길에 나가지 못해 집안형편이 아주 궁했다. 딸은 셋 두었는데 모두 혼기를 놓쳐 시집을 보내지 못하다가 어떤 사람이 공의 딸에게 청혼을 해 약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혼수며 세간을 장만해 보낼 길이 없는지라 먼 친척인 한 무관이 함경남도 단천端川의 부사府使로 있으니,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김우항은 여행경비를 어렵게 빌려 천 리 길을 걸어 간신히 단천읍에 도착했으나 단천부사는 쉽게 만나주지도 않았을뿐더러, 며칠을 굶은 끝에 겨우 만났으나 깨진 호리병에 담긴 막걸리와 안주는 미역 한 조각을 내오는 것이었다. 김우항은 노기가 발동하여 개다리소반을 발길로 차 엎어뜨렸다.

“아니, 사람 대하기를 이처럼 박하게는 못할거외다.”

“읍내 전역에 일러 만일 이 괴이한 놈을 재워주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게 하리라.”

쫓겨난 김우항은 하룻밤 자고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나 기생 항아(姮娥)의 도움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공께서는 지금 비록 가난한 선비일 뿐이지만 후일 반드시 크게 될 분이니 분명합니다. 큰 뜻을 굽히지 마소서.”

그 후 김우항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조정의 요직에 앉게 되었고, 김우항의 사연을 알았던 것인지 숙종은 어느 날 김우항에게 함경도 지역의 암행어사로서 탐관오리를 감찰하라는 밀명을 내린다.

단천에 도착한 김우항은 항아를 먼저 만나 단천부사의 비리를 사전 조사, 증거를 확보하고 이튿날 단천부사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한다.

○ 김우항은 서인 정당 소속이었으나 당파에 상관없이 공정한 인사를 행했고 평생 청빈한 생활을 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노년에 정승의 지위에 올라 숙종, 경종으로부터 원로대신의 대접을 받았다.

○ 탕춘대성(蕩春臺城)과 홍지문(弘智門)



○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서울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기 위하여 숙종 41년(1715년)에 쌓은 것이다. 홍지문은 한성(漢城)의 북쪽에 있는 문이므로 한북문(漢北門)이라고도 하였으나, 숙종이 친필로 '弘智門'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여 달면서부터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현재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 현재의 문은 1921년 홍수로 인해 오간대수문과 같이 허물어진 것을 1977년에 복원한 것.

○ 탕춘대성은 인왕산 동북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천을 지나 북한산 서남쪽의 비봉 아래까지 연결하여 축성한 산성이다. 이 산성의 명칭을 탕춘대성이라고 한 것은 현재 세검정이 있는 동쪽 약 100여m 되는 산봉우리에 탕춘대(蕩春臺)가 있었던 것에서 연유한 것이며,

한성의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성(西城)이라고 하였다. 왜란과 호란 속에서 서울이 함락되며 갖은 고초를 겪은 조선왕조는 전쟁이 끝난 후 국방은 물론 유사시에는 수도를 방위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효종(1649~1659 재위), 현종(1659~1674 재위)을 거쳐 숙종 때에 이르러서는 수도방위에 더욱 치중하였다. 숙종은 재위 30년(1704) 3월부터 도성 수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공사는 6년 후인 숙종 36년(1710)까지 계속되었다.

○ 도성 수축공사를 끝낸 숙종은 왕 37년(1711)에는 북한산성을 축성하였고 다시 탕춘대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이 탕춘대성을 축조하자는 논의는 이미 숙종 28년(1702)에 신완(申琬)이 제의하였다. 그 후 탕춘대성은 숙종 44년(1718) 윤8월 26일부터 축성하기 시작하여 10월 6일까지 40일간 성 전체의 약 반을 축성하고 일단 중지하였다가 다음해 2월부터 다시 축성하여 약 40일 후에 완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탕춘대성 전체의 길이는 약 4km였음도 알 수 있다. 성내에 연무장(鍊武場)으로 탕춘대 터(오늘날 세검정초등학교)에 연음대(鍊戎臺)를 설치하는 한편, 비상시를 대비하여 선혜청(宣惠廳) 창고와 군량창고인 상·하평창(平倉)을 설치하였다. 그 후 탕춘대성의 축성과 함께 그 성안을 총융청(摠戎廳) 기지로 삼고, 군영도 배치하였다.



『한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 관야정(關野貞) 著, 1904년 (1902년 촬영)

○ 북한산성 행궁

행궁이란 왕의 임시 숙소 또는 전쟁시 임시 피난처 혹은 지휘소인데 궁의 격식을 갖추어 지은 건물을 말한다. 북한산성 행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도성의 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 숙종 37년(1711) 북한산성을 고쳐 쌓을 때 함께 건립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 완공하였다.

중흥사터에서 대남문 방향에 있으며, 수축공사 책임을 맡은 김우항(金宇杭)이 비상시 산성 내(內)에 머무를 수 있는 행궁을 세울 것을 상주(上奏)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왕비의 거처인 내전 63칸, 왕의 거처 외전 61칸 으로 총 124칸에 달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거의 방치에 가까운 관리소홀과 1915년 대홍수로 전각들은 하나 둘 무너져 내리고 결국 건물을 떠받들던 주춧돌만이 앙상하게 남게 되었다.



<참고서적>

- 숙종과 장희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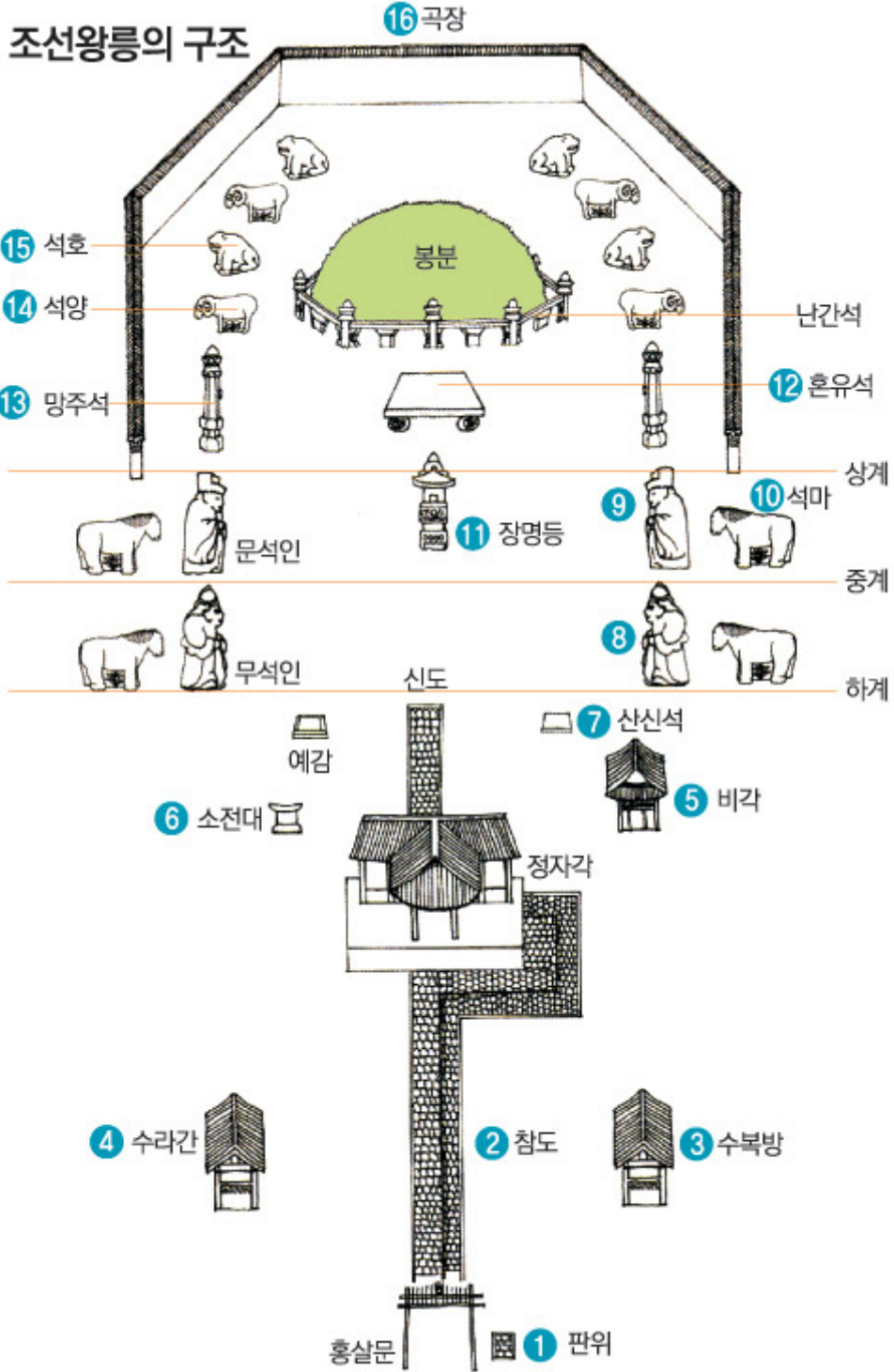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이덕일, 석필
신들의 정원, 조선왕릉, 이정근, 책보세
산성으로 보는 5000년 한국사, 이덕일 김병기, 예스위캔
한국사편지3, 박은봉, 응진주니어
만화로 보는 장희빈, 장유진 박종관, 문공사
숙종실록

-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

국역 송자대전, 민족문화추진회
우암 송시열, 국립청주박물관
우암 송시열, 광신환, 서광사
국역 미수기언, 민족문화추진회
청빈한 대쪽선비 미수 허목, 허찬무, 진한엠앤비
주자어류
사서 四書
내면기행, 심경호, 이가서
숙종실록

- 갑봉 김우항

기인기사(조선의 별난 사람 별난 이야기), 송순기, 푸른역사
한국고소설연구, 최운식, 보고서
맹꽁이서당5, 윤승운, 응진주니어
숙종실록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은 크게
 △제례를 준비하는 재실에서 왕릉 입구인 홍살문에 이르는 진입공간
 △홍살문에서 제례를 올리는 정자각까지의 제향공간
 △정자각에서 봉분에 이르는 능침공간으로 나뉜다. 진입공간은 속(俗)의 세계다.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제향공간에는 성(聖)과 속이 공존한다.
 능침공간은 평소에는 산 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성의 세계다.

- | | |
|--|---|
| <p>① 판위(배위)=돌을 깔아 놓아 참배자가 절을 하는 곳이다.</p> <hr/> <p>② 참도=신(神)이 다니는 신도와 왕이 다니는 어도로 나뉜다.</p> <hr/> <p>③ 수복방=능지기(능침봉)가 지내던 건축물이다.</p> <hr/> <p>④ 수라간=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곳이다. 수복방처럼 남아 있지 않은 왕릉이 많다.</p> <hr/> <p>⑤ 비각=왕릉에 묻힌 왕과 왕비의 비석이나 신도비를 안치한 곳이다.</p> <hr/> <p>⑥ 소전대(예감 또는 망료위)=제향이 끝난 뒤 축문을 태우는 곳이다.</p> <hr/> <p>⑦ 산신석=왕릉이 있는 산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돌이다.</p> <hr/> <p>⑧ 무석인=왕을 호위하는 무관을 형상화한 석물이다.</p> | <p>⑨ 문석인=왕명에 복종한다는 의미로 흙(임금을 만날 때 지니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p> <hr/> <p>⑩ 석마=문·무석인 뒤에 대동한 말의 조각이다.</p> <hr/> <p>⑪ 장명등=사찰의 석등과 비슷한 형식으로 왕릉에 투영된 불교사상을 나타낸다.</p> <hr/> <p>⑫ 혼유석=혼령이 노니는 곳이라는 뜻의 돌상이다.</p> <hr/> <p>⑬ 망주석=봉분의 좌우에 1개씩 세운 기둥이다.</p> <hr/> <p>⑭ 석양=명복을 빌며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양 모양의 수호신.</p> <hr/> <p>⑮ 석호=능침을 지키는 호랑이 모양의 수호신.</p> <hr/> <p>⑯ 곡장=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3면으로 둘러싼 담장이다.</p> |
|--|---|

서오릉



명릉 : 숙종과 인현왕후, 인원왕후

익릉 : 인경왕후

대빈묘 : 숙빈 장씨(장옥정)

수경원 : 영조의 후궁, 사도세자의 어머니 이씨, 정조의 할머니. 연세대학교에 정자각이 있다. 1968년 천장.

경릉 :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덕종 추존)와 소혜왕후(추존)

창릉 : 예종(세조의 둘째아들)과 안순왕후

흥릉 : 정성왕후(영조의 원비)

순창원 : 순회세자(명종의 장자)

2013년 6월 16일 탐방길

서오릉 지역 : 명릉 - 수경원 - 익릉 - 대빈묘

탕춘대성 및 홍지문 지역 : 상명대 - 탕춘대성 - 상명대 - 홍지문